

건축계 소식

6.4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2명 포함 '건축사 13명' 당선

지난 6월 4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2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건축사가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건축사는 총 13명으로, 지방자치단체장(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4명, 구시군의회의원 6명, 기초의원(비례대표) 1명이 당선됐다. 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선자 12명보다 1명 늘어난 수치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에는 현 종로구청장인 김영중 건축사(前김영중건축사사무소)가 재선됐다. 김 건축사는 44,159표(득표율 55.51%)를 얻었으며, 지난 4년간 건축적인 마인드로 구정업무를 추진, 종로 곳곳에 변화를 주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 건축사는 "확고한 안전중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난 2010년 구청장 당선으로 30년 가까이 운영하던 건축사 사무소를 닫았다.

현 원주시장인 원창묵 건축사(前(주)건축사사무소 예원)도 4년간 원주시를 다시 맡게 됐다. 수도권 전철 연장 국비 확보와 원주천 상류 댐 조성, 캠프롱 시민 공원 조성, 교도소 외곽 이전 국가예산 확정 등 대형 사업들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 재선됐다.

이밖에 시도의회의원에는 ▲강성언 건축사(서울/가원 건축사사무소) ▲강무길 건축사(부산/주.경부 건축사사무소) ▲김석곤 건축사(충남/건축사사무소 공간) ▲진병영 건축사(경남/건축사사무소 전원)가 당선됐으며, 구시군의회의원에는 ▲김연후 건축사(서울 강동구/한울 건축사사무소) ▲김진구 건축사(충남 아산시/김진구 건축사사무소) ▲노경윤(전남 목포시/주.토마 건축사사무소) ▲김성태 건축사(경북 상주시/도시 건축사사무소) ▲이천수 건축사(경북 경산시/예공종합 건축사사무소) ▲홍인표 건축사(대구 중구/거화 건축사사무소)가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는 정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된 건축사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인화 건축사(도원 건축사사무소)는 새누리당 기초의원비례대표 1순위로 서울 강남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건축사는 "강남지역 건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 건축사 당선인>

구분	이름	지역	건축사사무소	소속정당
지방자치단체장 (구시군의 장)	김영중	서울 종로구	前김영중건축사사무소	새정치민주연합
	원창묵	강원 원주시	前(주)건축사사무소 예원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의회의원	강성언	서울	가원 건축사사무소	새정치민주연합
	강무길	부산	(주)경부 건축사사무소	새누리당
	김석곤	충남	건축사사무소 공간	새누리당
	진병영	경남	건축사사무소 전원	새누리당
구시군의회의원	김연후	서울 강동구	한울 건축사사무소	새정치민주연합
	홍인표	대구 중구	거화 건축사사무소	새누리당
	김진구	충남 아산시	김진구 건축사사무소	새누리당
	노경윤	전남 목포시	(주)토마 건축사사무소	새정치민주연합
	김성태	경북 상주시	도시 건축사사무소	무소속
	이천수	경북 경산시	예공종합 건축사사무소	새누리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이인화	서울 강남구	도원 건축사사무소	새누리당

6.4 지방선거
건축사 당선인



종로구청장
김영중



원주시장
원창묵



시도의원(서울)
강성언



시도의원(부산)
강무길



시도의원(충남)
김석곤



시도의원(경남)
진병영



구시군의원(서울 강동)
김연후



구시군의원(대구 중구)
홍인표



구시군의원(충남 아산)
김진구



구시군의원(전남 목포)
노경윤



구시군의원(경북 상주)
김성태



구시군의원(경북 경산)
이천수



기초의원 비례대표
(서울 강남) 이인화

「2014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작품 공모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는 녹색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 녹색건축물을 발굴·시상하는 '2014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이하 녹색건축대전)을 개최하고 참여 작품을 공모한다.

올해 녹색건축대전은 국건위가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녹색건축 관련 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패시비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준공된 건축물(리모델링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녹색건축대전 작품접수는 6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회, 전시회 등은 '2014 대한민국 녹색건축한마당' 행사와 연계되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시상은 국건위 위원장상 1점(대상, 상금 500만원)과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3점(최우수상, 상금 각 300만원), 후원 기관장상 7점(우수상, 상금 각 100만원)을 각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한다.

국건위 관계자는 "이번 녹색건축대전은 환경을 생각하고 인간을 위한 녹색건축 기술의 현재와 앞으로 추진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녹색건축한마당 행사와 연계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녹색건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AURI)가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 받았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설계용역비가 고시금액(2억 3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규모와 예산의 적정성, 발주방식 및 디자인 관리방안의 효율성, 공공적 가치 제고방안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공공건축 조성사업의 내실화 및 공공건축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자문, 공공건축 DB 구축 및 관계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AURI 제해성 소장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가의 공공건축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공건축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품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및 역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npbk.or.kr)를 통해 안내되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AURI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건축사회 여성위원회 '기술사랑 프로젝트 감성봉사' 참여



경기도건축사회 여성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오전 9시 한국기술사회 여성위원회, 치과여의사회, 한의사회, 파주시와 함께 '기술사랑 프로젝트 취약계층 안전점검 및 감성봉사'에 참여했다. 파주시 법원읍 곰곡2리의 폐교된 학교운동장에서 90여명이 모여 개회식을 하고 4개팀으로 나누어 오전에는 5가구 200장씩 연탄배달을 했다. 오후에는 폐교에서 도서관과 어린이집으로 새로이 태어난 건축물 내부에 벽화를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주변에 화단에 풀뽑기, 텃밭 풀뽑기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건축사회 여성위원회에서 23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여성위원회 전문위원장은 "내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더 많은 회원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행사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축사등산동호회 '2014년 상반기등반대회' 성료



대한건축사등산동호회는 지난 6월 14일 충남 용봉산에서 '2014년도 상반기등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건축사회원 305명과 가족 90명 등 총 395명이 참석했으며,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을 비롯해 조충기 부회장, 김득수 감사, 신우식 감사 등이 산행에 동반했다. 이번 용봉산 등반대회는 구룡대 매표소를 출발해 최고봉 정상에 거친 후 '용도사' 방향 A코스와 '최영장군 활터' 방향 B코스로 나눠 참가자 전원이 완주했다. 행사 시작 전에는 협회 홍보를 위해 등반로 입구에서 일반 등반객에게 홍보기념물을 나눠주었으며, 행사 후에는 대구와 대전 및 제주지역동호회에서 충남도청 신청사를 답사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등반대회는 오는 11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제주도 한라산에서 열린다. 참가를 희망하는 건축사 회원들은 각 지역 등산동호회 또는 대한건축사등산동호회 카페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으며, 동호회 사무총장 김경복 건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다우/010-3697-6645)에게 문의하면 된다.

「MADE」, 한정판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메이트 6호에 게재된 1954년 남대문 항공사진

사진을 통한 문화예술잡지를 표방하며 창간한 「MADE」가 이번 9월호를 특별 한정판으로 제작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tumblr.com/ko/made)을 진행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다. 특집호는 '3대가 바라본 서울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1900년대 중후반 서울의 개발이 한창이었을 때의 모습을 공개하고, 앞으로 미래가 될 2000년대 현재의 모습을 새로운 시각으로 담아내고자 기획했다. 건축사진 3대는 임인식-임정익-임준영을 말한다. [출처]